책머리에

1 현실과 성찰

교만한 자폐와 시의 현실 • 14
역사의 전위와 후위에 선 시의 두 길 • 32
바깥의 노동, 낯선 욕망 • 55
순결의 심미적 매력 • 73
시와 영화, 공유할 수 없는 숙명 • 87
추상과 구체, 그 어긋남의 관습 • 105

2 독백의 내부, 서정의 윤리

역사와 개인이 만나는 시의 자리-최하림론(1) • 122
풍경의 자연주의-최하림론(2) • 145
'같다' 와 '싶다' 가 동숙同宿하는 세계-문인수론 • 159
심미적 세계와 윤리적 감성-문태준론 • 168
시와 신념-맹문재론 • 177
무덤보다 깊은 우물-정인섭론 • 189
자기 손금을 파는 미학의 방법-김승희론 • 197
힘과 미美와 성聖의 세계, 그 오래된 미래-허만하론 • 208

시간, 그 홀로 깊어지며 이어지는 슬픔의 강-이승하론 • 216
고요 속 들끓음, 육체와 영혼을 넘어서는 역동성의 시학-허영자론 • 225
길과 흔적, 연민을 내장한 견인의 시학-김완하론 • 240
푸른 숟가락, 그 허기虛飢의 시학-성선경론 • 258
경계의 바깥과 안, 그 허기虛飢의 풍경-최금진론 • 268
구심력과 원심력의 관념이 나란히 놓인 진경-박남희론 • 278

3 대화와 동행

시와 영화, 그 오래된 미래 • 292
은유, 그 서정의 전언傳言 • 305
일상의 상투성과 황폐함에 관한 섬뜩한 은유 • 320
비평의 정당한 입지 • 332
'현실주의'에 대한 강박, 미당未堂과 한국 현대시 • 344
시 읽기의 즐거움 • 353